



몸 날린 서건창...세이프? 아웃? 키움 히어로즈 2번 타자 서건창(왼쪽)이 22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펼쳐진 NC 다이노스전에서 5회말 1사 3루 제리 샌즈의 유격수 땅볼 때 홈으로 온 몸을 던지며 세이프되고 있다. 키움은 4-2로 승리했다.

LG, SK에 0-2...시즌 최다 4연패 늪

22일 게임 브리핑

SK 최항 어깨 탈골 교체 아웃 KIA 신범수 데뷔 첫 홈런 폭발

●KT 배제성, 5이닝 무실점 쾌투

KT 위즈 배제성이 수원 두산 베어스전에 선발등판해 5이닝 4안타 2볼넷 2삼진 무실점의 '인생투'를 펼쳤다. 리그 선두 두산을 상대로 만들어낸 결과라 더욱 의미 있었다. 비록 볼펜의 난조로 승리를 쟁기는 데 실패했지만 향후 보직 변경 가능성을 확인한 경기였다. 투구수는 86개, 최고 구속은 시속 149km까지 나왔다. 배제성이 한 경기 5이닝 이상 소화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 올해 선발과 볼펜으로 각 한 번씩 있었다. 3월 28일 창원 NC 다이노스전에서는 선발로 5이닝 4실점, 5월 5일 대전 한화 이글스전에서는 구원등판해 5이닝 무실점을 기록한 바 있다. 선발 5이닝 무실점은 데뷔 처음이다.

●삼성 윤성환, 연속경기 QS 행진 마감

삼성 라이온즈 윤성환이 연속경기 퀄리티스타트(QS·선발투수 6이닝 3자책점 이하) 기록을 2게임에서 멈췄다. 대구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전에 선발등판해 5이닝 동안 78구를 던지며 6안타(2홈런) 1볼넷 3삼진 4실점을 기록했다. 탁월한 제구력과 빠른 템포를 앞세워 안정적인 투구를 했지만, 2회(3점)와 4회(1점) 한화 이성열에게 얻어맞은 연타석 홈런이 뼈아팠다. 윤성환은 6회부터 최재홍과 교체되며 3승 도전을 다음으로 미뤘고, 평균자책점도 종전 2.93에서 3.38(48이닝 18자책점)로 나빠졌다.

●SK 최항, 왼 어깨 탈골로 교체 아웃

SK 와이번스 내야수 최항은 잠실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원정 경기에 8번 2루수로 선발 출장해 1-0으로 근소하게 앞선 5회 2사 주자 1루 때 중견수 앞으로 빠져나가려는 이천웅의 타구에 몸을 던지는 호수비를 펼쳤다. 아웃카운트를 추가하지는 못했지만, 내야 안타에 그치게 해 타자와 주자를 1-2루에 묶었다. 하지만 최항은 어깨 탈골로 안상현과 즉시 교체됐고, 선발 투수 양형 산체스는 후속 타자인 이형종을 좌익수 뜬공으로 돌려세워 실점 없이 5회를 마쳤다. SK 관계자는 "최항은 왼쪽 어깨에 습관성 탈골 증세가 있다. 어깨는 다시 켜고, 아이싱 중이다. 따로 병원은 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KIA 신범수, 데뷔 첫 홈런포 폭발

KIA 타이거즈 포수 신범수는 광주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전에 포수 겸 8번타자로 선발출장해 2회 자신의 첫 타석에서 우측 담장을 넘기는 투런포를 쏘아 올렸다. 2016년에 입단 이후 개인 첫 홈런포. 2사 1루 상황에서 상대 선발투수 김원중의 한 가운데 몰린 시속 143km짜리 직구를 잡아 당겨 비거리 115m짜리 야치를 그렸다. 신범수는 6회에도 또다시 홈런을 쳤다.

원투펀치 윌슨·켈리 내세우고도 쓴맛 조셉 실책 후 3루타 이어져 점수 헌납 팀 5안타...되살아나는 장기연패 악몽

연패를 끊어낼 절호의 기회를 또 놓쳤다. SK 와이번스를 안방으로 불러들여 리그 정상급 선발 원투펀치인 타이러 윌슨과 케이스 켈리를 차례로 내세웠지만, 실책과 빈타에 허덕이며 시즌 팀 최다인 4연패에 빠졌다.

외인 투수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 켈리가 22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SK와의 홈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7이닝 6안타 3삼진 2실점(1자책점)을 기록했지만, 타선에서 단 한점도 뽑지 못해 0-2로 고개를 숙였다. 켈리로서는 타이러 스타트 플러스(7이닝 3자책점 이내)를 달성하고도 패전 투수

의 불명예를 썼다. 하루 전 윌슨이 7이닝 4실점(1자책)으로 패전 투수가 된 상황이 어김없이 반복됐다.

실책이 실점으로 이어지는 패배 공식이 이어진다. LG는 21일 SK전서 0-0으로 맞선 2회 2사 주자 1루 때 유격수 실책과 2연속 안타를 묶어 3점을 먼저 내줬고, 승부를 뒤집지 못했다. 두 번의 실수를 막기 위해 22일 경기에 앞서서는 내야수들의 집중 수비 훈련이 이뤄졌지만, 실전에서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날 역시 0-0으로 출발한 3회 1사 이후 1루수 토미 조셉의 실책으로 고종욱을 출루시켰고, 제이미 로맥의 3루타가 터져 1점을 헌납했다.

방망이의 침묵을 깨트릴 계기를 마련하지 못해 타자들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진다. 21일에는 2회 조셉의 2점 홈런으로 무득점 패배를 간신히 면했는데, 22일에는



이번에도 LG 트윈스는 연패를 끊지 못했다. 시즌 팀 최다인 4연패. 잦은 실책과 빈타가 안타깝다. 침통한 분위기의 덕아웃 풍경.

잠실 |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총 5안타에 그치며 이렇다할 득점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 6회 박용택~김현수~조셉으로 이어지는 클린업 트리오가 SK 선발 양형 산체스에게 3연속 삼진으로 물러난 데 이어 7, 8회 역시 연달아 삼자범퇴로 무력했다. LG는 21일 SK전 2회 2점을 뽑은 이후로 22일 SK전 9회까지 16이닝 연속

무득점에 그쳤다. SK가 김강민, 한동민 등의 중심 타자들이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한 가운데서도 마운드의 힘과 타선의 응집력을 섞어 LG를 상대로 위닝 시리즈를 확보한 것과 상반되는 대목이다.

떨쳐낸 듯 했던 '장기 연패'의 악몽이 되살아나려한다. 힘겹게 지켜온 최다 3연패의 벽이 허물어졌고, 25승23패로 5할 승률 사수에도 비상이 걸렸다. 3~5일 두산 베어스와의 어린이날 맞대결에서 스윙 패를 떠안은 뒤 키움 히어로즈~한화 이글스~롯데 자이언츠~NC 다이노스~SK를 만나 4차례의 루징 시리즈를 기록하며 패배의 숫자가 속절없이 쌓여왔다.

마운드의 강점은 살리지 못하고, 타선에서 마땅한 분위기 반전 카드를 찾지 못해 더욱 답답한 LG다.

잠실 | 서다영 기자 seody3062@donga.com

'선발진의 난' 김한수 감독 "최재홍 대체선발 1순위"

2군 다녀온 후 제구·구속 향상 선발진 변수에 대비 대안 구상

"(최)재홍이는 대체선발 1순위입니다."

삼성 라이온즈 김한수 감독(48)은 올 시즌을 앞두고 구상했던 선발진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은 탓에 고민이 깊었다. 지금까지 모든 로테이션을 정상적으로 소화한

투수는 맥 맥카이어가 유일하다. 저스틴 헤일리는 두 차례나 투구 도중 부상으로 조기 강판했고, 백정현도 한 차례 로테이션을 건너뛰었다. 윤성환과 원태인은 최종연과 최재홍의 부진으로 뒤늦게 선발진에 합류한 케이스다. 그러다 보니 잠시도 선발진에 대한 고민을 놓을 수 없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공백을 대비해 대체자를 찾는 작업이 필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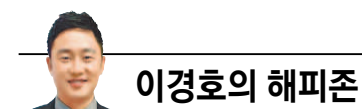
김 감독이 가장 눈여겨보는 대체선발 후보는 최재홍이다. 올 시즌 첫 3경기에서 2승, 평균자책점 3.94로 순항했지만 이후 선발등판한 2게임에선 8이닝 14자책점(평균자책점 15.75)로 무너지며 두 차례나 2군에 다녀와야 했다. 다행히 이후 2경기에는 모두 구원등판해 6.1이닝 2실점의 쾌투로 2승을 따냈는데, 이 기간에 삼진 11개를 속이내며 볼넷은 단 한 개만 허용했다. 2군에서 제구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훈련한 덕분에 안정감을 찾았다는 분석이다. 포심패스트볼 최고구속이 147km까지 상

승했다는 점도 기대를 키우는 요소다.

김 감독은 22일 대구 한화 이글스전에 앞서 "선발진에 또 공백이 발생하면 최재홍을 활용할 수 있다"며 "대체선발 1순위다. 헤일리의 상태가 좋지 않았다면 그 자리엔 최재홍의 등판을 생각했다"고 밝혔다. 헤일리는 지난 17일 수원 KT전에 선발 등판했으나, 오른팔 근육통으로 1이닝(1실점)만 소화하고 교체됐다. 다행히 더 이상의 통증이 없어 24일 대구 키움 히어로즈전 등판이 유력하다.

대구 | 강민 기자 posterboy@donga.com

NHL 응징자 엔포서와 불문율의 수호자 '빈볼'



이경호의 해피존

1988년 캐나다 아이스하키 팬들은 발각 뒤집혔다. 에드먼턴 오일러스가 빙판의 황제 웨인 그레츠키(58)를 LA 킹스로 트레이드한다고 발표하자 정치권에서까지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그레츠키의 LA 입성은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의 인기를 미국 서부까지 확장시킨 역사적 순간이었다. 당시 그레츠키의 이적 조건에는 매우 특별한 항목이 하나 있었다. '마티 맥솔리가 꼭 함께 LA로 가야한다'고 그레츠키가 직접 요청한 내용이었다. 마티 맥솔리는 NHL에만 존재하는 '엔포서(enforce)'였다. 맥솔리가 없었다면 그레츠키는 부상으로 훨씬 빨리 은퇴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공동된 평가다. 맥솔리는 그레츠키에게 교묘한 반칙을

하거나 거칠게 보디체크를 하는 상대 선수에게 달려가 주먹다짐을 벌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였다. 맥솔리가 벤치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그레츠키는 날렵하게 빙판을 질주했고 픽을 골문으로 날릴 수 있었다.

엔포서, 수 십 년간 NHL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단어다. NHL 엔포서들은 하키 선수지만 복싱훈련을 한다. 그 중에는 아무리 높게 평가해도 하키 실력은 NHL레벨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다. 공통점은 최고의 싸움 실력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은 거구에 날렵하고 투지로 뿔뿔 뿜어댄다.

팀원들은 모두 엔포서를 믿고 의지한다. 아이스하키는 무기로 둔갑할 수 있는 스틱을 손에 쥐고 경기한다. 스케이트 날은 날카롭다. 모든 구기 종목 중 가장 속도가 빠르다. 심판의 눈을 피해 스틱으로

후려치거나, 스케이트로 걷어 찌 수도 있다. 과한 충돌은 큰 부상으로 이어진다.

엔포서는 이런 경기 특성 속에서 보이지 않은 하나의 기준을 세운다. 선을 넘어서는 순간, 최고의 파이터와 격투를 벌여야 하기 때문에 더 신중히 수비를 할 수밖에 없다.

덕분에 슈퍼스타들은 더 빠르고 화려한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됐다. 부상도 크게 감소했다. 엔포서가 있는 NHL이 유럽리그보다 공격수들의 부상 비율이 훨씬 낮은 것이 이를 증명한다.

야구에서 NHL의 엔포서와 가까운 단어는 빈볼이다. 어원은 '머리를 향해 던지는 위협구'다. 그러나 대부분 빈볼은 부상 위험이 적은 엉덩이가 목표다. 빈볼은 경기시간의 제약이 없는 야구 특성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 또한 야구는 아이스하키 이상 위험한 도구를 이용한다. 시속 140km의 공은 생명을 뺏을 수도 있다.

빈볼 역시 하나의 기준선을 넘는 순간 날아온다. 무관심 도루 등 욕심을 부리다

상대의 자존심을 짓밟았을 때, 사인 훔치기 등 매너 없는 플레이, 수비수를 다치게 하는 격한 슬라이딩이 나오면 빈볼을 각오해야 한다. 서로 지키기만 하면 야구경기는 훨씬 더 매끄럽고 품격있게 진행될 수 있다. 물론 공에 맞아 부상을 당한 타자가 없어야 한다는 큰 전제가 필요하다.

빈볼도 야구의 일부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최근 현장에서 만난 투수들은 고민을 털어 놓는다. "상대 주축 타자한테 몸쪽 승부도 못하겠다. 빠지더라도 하면 일년 내내 욕을 먹는다", "우리 타자들이 다치면 서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달라진 환경 속 과거 엔포서처럼 용감하게 마운드에 올라 깔끔하게 타자 엉덩이에 공을 던질 배짱 있는 투수들은 사라지고 있다. 그만큼 KBO리그에서 빈볼이 갖고 있는 기준점은 열어졌고 역할도 작아지고 있다. 올바른 변화인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스포츠부 차장 rush@donga.com